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13년 8월 5일

음력 6월 29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법등(구창회)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7년 제165호

총기 42년 불교총지종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봉행



▲ 주문진 해변에서 열린총지사 방생법회



▲ 부산, 경남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불교총지종 하반기 49일 불공이 7월 16일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회향했다. 진호국가불공과 선방 부모 영식천도불공은 5월 28일 시작되어 49일간 전국의 사원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봉행되었다.

본산 서울 총지사는 7월 16일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를 주문진 소돌 해변 아들바위 공원에서 봉행했다. 법등주교의 집공으로 열린 법회는 어류방생을 통해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서원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등 주교가 대독한 법어에서 “그 동안의 법회는 살아있는 생물을 방생하는 것을 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회는 불쌍한 중생들의 자유로운 삶을 기원하며, 그들의 삶의

질곡에서 방생시켜주는 인간 방생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삼계의 중생 모두가 방생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가기를 서원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인사말에서 “나의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방생은 이러한 자각 즉, 연기적 세계관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며 모든 생명이 나와 같이 소중함을 강조했다.

총지사 교도들은 소돌 해변 공영주차장 솔밭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공양을 한 후, 강원도 동해시 정동진에 위치한 「등명낙가사」로 관불에

나섰다.

「등명낙가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 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자장 율사는 창건 당시 수다사(水多寺)라 이름 짓고, 북쪽의 고구려와 동쪽의 왜구를 지키기 위한 호국 사찰로 건립되었다.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 서 폐사되었다. 지금의 사찰은 1956년 경덕 스님에 의해 중창 복원되었다.

실지사(주교 범우 정사) 30여명의 교도들이 동참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는 충남 부여 구드레 나루터에서 봉행했다. 방생을 마친 후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정원인 궁남지의 연꽃을 관람하고 백제문화역사관에서 3D 영화 ‘사비의 성’을 관람했다.

부산, 경남 교구

부산, 경남 교구(교구장 시정 정사)는 7월 16일 교구 합동으로 전북 무주리조트 대연회장서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지광(성화사 주교) 정사의 집공과 법선 정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법회는 하반기 49일 간의 불공의 원만한 회향과 선방부모 영가천도를 위한 자리였다.

법상인 전수가 대독한 효강 종령 법어에서 “오늘 이 법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 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애정의 시선을 보내고, 작은 일이나 그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가슴깊이 인간 방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우치고, 나아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을 다지며, 불자로서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며 인간 방생의 참의미를 당부했다.

부산, 경남 교구장 시정 정사는 봉행사에서 “우리 종단 만의 특별한 불공법인 49일 불공을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원만히 회향하게 되어 기쁩니다. 교도님들의 가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구 소원이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서원합니다.”며 불공 회향과 공덕 성취를 서원했다.

부산, 경남 신정회 신인록 지회장은 봉축사에서 “삼세의 부처님 전 저희의 간절한 서원을 들어주셔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게 하소서. 또한 부산, 경남 교도들의 화합과 단결로 종단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교도들의 화합으로 교구 발전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충청, 전라교구

충청 전라교구(교구장 환수원 전수)는 16일 오전 11시 전북 무주 반디랜드에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승원 정사의 집공과 지정 정사의 사회로 봉행된 법회는 종령 법어 및 통리원장 인사말을 대독하고, 전통의례에 따라 진행되었다. 점심공양 후에는 각 사원별 장기자랑이 벌어져, 49일 동안 불공으로 쌓인 피로를 웃음으로 풀었다.

만보사, 백월사, 해정사는 영동군 반야사, 문수암 및 월유봉으로 관불에 나섰다. 전주 흥국사는 경남 함양 서암정사로 관불을 다녀왔다.

대구, 경북교구

대구, 경북교구(교구장 지공 정사)는 각 사원별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대구 개천사, 경주 국광사, 영천 단음사는 경남 하동 섬진강 변 솔밭에서 교구장 지광 정사의 집공으로 법회를 봉행하고 방생을 했다. 교구장 지광 정사는 설법을 통해 “지난 49일 동안 진호국가불공과 선방부모 영식천도불공을 무사히 회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불공의 공덕으로 교도 여러분들의 소구 사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 합니다.”며 49일간의 불공 공덕이 두루 펼쳐기를 서원했다.

포항 수인사(주교 지광 정사)는 법회를 봉행하고 전북 완주 송광사와 마안산 탐사를 다녀왔다. 수인사 교도들은 한 노거사의 필생의 집념으로 이른 마안산 탐사의 신비로움 돌림과 승보사찰 송광사의 녹음을 한껏 가슴에 담고 왔다.

(관련 화보 7면)

불교총지종 제11대 중앙종의회 개원 법회 및 제 1 차 종의회 개최

의장에 수현(진주 화음사 주교) 정사, 부의장에 범우(서울 실지사 주교),
사감원장에 법상인(부산 자석사 주교) 선출



▲ 제11대 중앙종의회 개원 법회

불교총지종 제11대 중앙종의회가 7월 23일 오후 2시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효강 종령 예하, 법등 총리원장 및 집행부 및 종회의원이 참석한 개

원법회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제 11대 중앙종의회는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단의 산적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단의 백년대계를 바로세우는 종의회가 되기를 서원 합니다.”라며 새로 출범하는 종의회가 원만히 운영되기를 서원했다. 이어 의원 대표로 지공(포항 수인사 주교) 정사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종단의 현안을 심의 할 것을 선사합니다.”라고 본존 앞에 선사하였다.

이어 열린 제 1차 종의회에서는 제 1안건으로 의장 선출 안을 채택하고, 진주 화음사 주교 수현 정사를 만장일치로 제11대 중앙종의회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의장에 선출된 수현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아직 수행과 교화의 이력이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11대 중앙종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것을 비로자나 부처

님 전 서원합니다.”라며 종회 발전과 운영의 혁신을 위해 노력 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종회 부의장으로 서울 실지사 주교 범우정사를 선출 하였다. 이어 중앙종의회는 원의회에서 논의 상정한 사감원장 인준, 동해 중 감사 추천, 복지재단 감사 추천, 유지재단 감사 추천, 실지사 공사의 건, 사원 만다라 제작 시 본존 후불탱화 변경의 건, 괴산 공사 진행 사항, 관성사 재개방 진행 사항, 제3회 통일음악제 진행사항 등의 안건을 보고받고 심의 하였다.

사감원장은 종령 예하의 추천을 받은 현 사감원장 법상인 전수(부산 자석사 주교)를 재인 준했다. 동해중학교 감사는 도현 정사(마산 윤원사 주교), 복지재단 감사는 승원 정사(대전 만보사 주교), 도현 정사(마산 윤원사 주교), 유지재단 감사에 승원 정사(대전 만보사 주교)가 각각 선임 되었다.

통리원=김종열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융합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제(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보(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주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월초불공

08월05일~08월11일

09월02일~09월08일

09월30일~10월06일

11월04일~11월10일

12월02일~12월08일

자성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에 도산 스님 (전 중앙총회의장) 선출 총 144 명의 선거위원 중 68표로 당선



▲ 제25대 태고종 총무원장에 선출된 도산 스님

2013년 7월 19일(목)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실시된 제25대 태고종 총무원장에 도산스님이 선출됐다. 도산스님은 144표 중 68표를 얻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당선발표가 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산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은 “당선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채해결을 위해 청문회를 열 것이다”며 “청문회를 통해 종단이 바로서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산 스님은 “이번 선거를 통

해서 느낌 점은 이번에 바뀐 선거법으로 인해 선거를 치르는 데 매우 어려웠다”며 “앞으로 선거를 치루는데 있어서 직선제가 훨씬 더 수월할 듯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각 종무원별로 토론회를 열어 한 번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조계종에서 선거 운동 때 많은 돈을 쓴다는 이유를 알 것 같으며 앞으로는 효율적인 선거를 위해서 직선제의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산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 스님은 임기 4년 동안 선거 운동 하면서 내건 핵심적인 공약 3가지를 원칙을 세워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종단 화합을 위해서 상을 받을 자와 벌을 받을 자를 구분해야 했었는데, 그러한 원칙이 없었기에 종단 화합에 지장이 생긴 것이다며 청문회를 통해 종단의 문제점을 짚어나갈 것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표차가 많이 난 이유에 대해서 스님은 “종단 개혁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오랜 시간 종단의 정제되었던 것들이 이번에 표심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생각 한다”고 말했다.

태고종=한국불교전통 전승관 김종열 기자

법연종 신규 회원종단으로 가입승인 종단협 제2557년 제3차 이사회 개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7월 23일 불기2557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불교총지종 총무부장 인선 정사,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 부회장 인공 스님, 회장 정사 등 이사 종단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불교역사문화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변경의 건에서 부회장에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상임이사에 총지종 통리원장 범등 정사, 조계종 총무부장 원담 스님, 진각종 총무부장 덕정 정사가 변경 승인 되었다. 다음으로 4월 15일 세라톤 위커했 호텔 비스타 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국민행복 기원 대법회 행사보고와 총평, 결산보고를 사무처로부터 보고 받았다.

불기255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보고, 제16차 한중일불교 우호교류대회 예비회의 보고 및 본 대회 관련의 건, 회비관련 보고, 신규회원종단 가입신청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심의 했다.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해남성 산아시에서 봉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자연재해 후 심리치료”를 학술강연 주제로 정했다.

신규회원가입종단의 건은 대한불교법연종을 신규회원종단으로 가입 승인했다. 신규 법연종은 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황매산 법연사를 종본산으로 1992년 12월 4일 창종한 종단이다.

불교역사문화관=김종열 기자

신임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서울 구룡사 주지) 취임 법회 조계종 특별교구로 임기는 4년



▲ 군종교구기를 넘겨받은 신임 교구장 정우 스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교구장 이.취임법회가 7월 25일(목) 오후 6시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봉행되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범등 정사, 초대교구장 일면 스님, 교구본사 협의회장 동화사 성문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국방부 차관 백승주, 국회정각회장 정갑윤 의원, 국군 총 불교신도회장 원태보 장군, 예비불자회장 조남진 장군 등이 동참했다.

법회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군불교 역사와 비전을 제시하는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범일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통해 이임하는 자광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지난 4년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군종교구기가 신임 정우스님에게 이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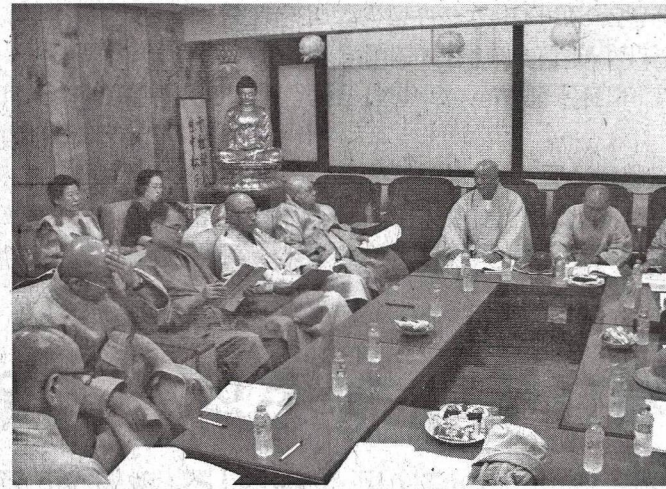
자광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출가 승려의 본분은 중생을 건지는 것입니다. 젊은 군인들이 포교가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군승으로 25년, 교구장으로 4년을 봉직했습니다. 이제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군승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무량하시기를 기원합니다.”며 4년간의 교구장 소임의 소회를 밝혔다.

제3대 교구장으로 취임하는 정우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40년 전에 26사단에서 군종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군종교구의 소임이 가장 힘든 자리라 생각합니다. 군종교구는 지원팀이고 현장에서는 군승들이 포교하는 것입니다. 법사스님들의 그늘과 울타리가 되고 자양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교구 운영의 각오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법어에서 “군 생활을 하는 젊은이에게 올바른 인생의 가치를 심어 건강한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건실한 불자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종단과 사부대중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군종교구는 청년 불자와 대학생불자를 확보하는 관문이라 새로 취임하는 정우스님의 원력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승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새로 취임하는 정우 스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전쟁기념관= 김종열 기자

한일불교문화교류회 불기2557년 3차 이사회 제3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결산 및 평가



▲ 한일불교문화교류회 3차 이사회

한일불교문화교류회(이하 교류협) 제3차 이사회가 조계사 교육관 교류협 회의실에서 열렸다. 불교총지종 총무부장 인선정사,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스님, 보문종 기획실장 금주스님 등 이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총장 송정스님의

사회로 열렸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 까지 공주 일원에서 열린 제3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 대한 결산보고의 건, 제8차 무차만발공양당의 건 및 기타 안건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제3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일본 측 51명, 한국 측 141명이 참석했다. 이사회는 준비 실무자들이 각종원고 번역에 등의 일정이 촉박해 사전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차기 대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자는 평가를 내렸다.

일본 측 참가자의 수가 많이 감소한 이유는 한일관계의 악화와 엔저 현상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사적인 교류 시간의 부족했던 것을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사찰 음식 제공으로 한국의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직, 간접적으로 홍보 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했다.

제8차 무차만발공양결산보고에서는 교류협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후 재원확보 방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17명의 이사가 참석해 성원을 이루었다.

총지중보를 이웃과 함께 합시다.

구독신청 _ 불교총지종 통리원 전화 _ 02)552-1080 E-mail _ jukah@paran.com

총지종 부산. 경남 교구 연등축제 장려상 수상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스님)은 불기2557년 부산연등축제 회향보고회를 봉행했다. 7월 17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연등장작등, 사진콘테스트, 제등행렬 등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회향보고회에는 불교총지종 부산. 경남교구 교구장 시정 정사, 동해중학교 정교 법선 정사, 정각사 정인화 전수, 부산. 경남 신정회 신인목 지회장, 정각회 류길자 신정회장, 만다라합창단 김윤경단장 등이 참석했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전경택	6/26	20,000
개천사	강순시	7/10	10,000
개천사	무명씨	7/23	30,000
개천사	이희권	7/24	10,000
건화사	이연호	7/23	10,000
관성사	박현숙	6/26	10,000
관성사	김병석	6/26	10,000
관성사	황성녀	6/28	10,000
관성사	인선	7/22	20,000
관음사	신막심	7/19	20,000
기로해정	해정	6/26	10,000
기로대관	대관	7/22	10,000
기로대자행	대자행	7/22	10,000
기로밀공정	밀공정	7/22	10,000
기로법수원	법수원	7/22	10,000
기로법장화	법장화	7/22	10,000
기로법지원	법지원	7/22	10,000
기로불멸심	불멸심	7/22	10,000
기로사홍화	사홍화	7/22	10,000
기로상지화	상지화	7/22	10,000
기로수증원	수증원	7/22	10,000

기로	총지화	7/22	10,000
기로	해정	7/24	10,000
단음사	법연지	7/15	10,000
덕화사	하순옥	7/16	5,000
만보사	정덕순	6/27	10,000
밀인사	정정희	7/1	5,000
밀인사	이위임	7/22	100,000
벽룡사	무명씨	7/4	10,000
벽룡사	무명씨	7/4	10,000
벽룡사	양정현	7/11	10,000
벽룡사	양지현	7/11	10,000
삼밀사	오혜민	7/8	10,000
삼밀사	서령	7/8	10,000
선립사	심지장	7/16	10,000
성화사	무명씨	7/12	40,000
수인사	김봉기	6/26	10,000
수인사	무명씨	6/28	10,000
수인사	정순득	6/30	10,000
수인사	정순득	7/23	10,000
승천사	원봉	7/12	10,000
승천사	지선행	7/12	10,000

시법사	선도원	7/22	10,000
실보사	이순옥	7/1	10,000
실지사	송우섭	6/27	5,000
실지사	정우석	7/11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6/26	30,000
일원어린이집	강은혜	6/27	10,000
일원어린이집	이지민	7/4	10,000
일원어린이집	하미영	7/4	10,000
일원어린이집	김지영	7/4	20,000
일원어린이집	이찬규	7/6	10,000
일원어린이집	서선숙	7/7	10,000
일원어린이집	최복란	7/9	20,000
일원어린이집			

	이 준 동	7/25	10,000
일원어린이집			
	김 지 연	7/25	10,000
일원어린이집			
	김 지 영	7/25	10,000
정 각 사	구 정 희	7/24	20,000
정 각 사	김 문 수	7/25	10,000
정 심 사	원 정 언	7/16	30,000
지 인 사	허 성 동	7/10	30,000
지 인 사	지 성	7/12	10,000
지 인 사	송 효 제	7/12	10,000
총 지 사	법 등	7/3	30,000
총 지 사	김 병 관	7/3	10,000
총 지 사	이 인 성	7/5	30,000
해 정 사	정 은 선	7/15	10,000
해 정 사	최 영 례	7/22	10,000
화 음 사	강 동 화	7/25	10,000
화 음 사	강 순 란	6/28	5,000
흥 국 사	지 정	7/12	20,000
	구 미 자	7/4	10,000
	이 형 근	7/17	10,000

김갑선 7/19 10,000

6월26일부터 7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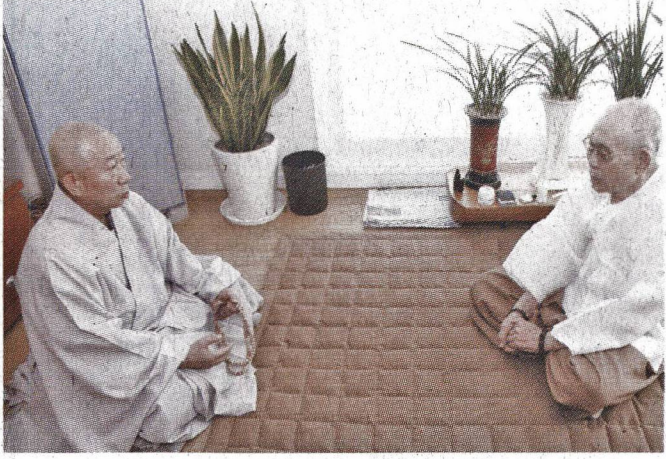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통리원 예방 효강 종령 예하를 예방하고 교계 현황 등 논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이자 관음종 총무원장인 홍파 스님이 7월 30일 총지종 통리원을 예방하였다. 홍파 스님은 효강 종령께 인사를 올리고, 종단협의회와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에 적극 동참 협력해 주시는 효강 종령께 감사사를 드렸다.

종령 예하는 “종단협 발전과 한일불교협의회 초창기에 헌신적인 활동을 하셔, 오늘의 발전을 이룬 홍파스님의 원력은 우리 불교 종단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효강 종령 예하와 홍파스님, 통리원장 범등 정사는 약 30 여 분간 불교계 현황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공동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관대중사 제1주기 추선불사 7월 21일 서울 관성사에서 봉행



▲ 관성사에서 봉행된 경관대중사 제1주기 추선불사
백년대계의 초등교육 현장을 버리고, 진언 밀교 정법 교화를 위해 평생을 수행 정진한 경관 대중사의 제 1주기 추선불사가

7월 19일 서울 관성사에서 봉행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 범등 통리원장 및 통리원 집행부와 전국의 스승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관성사 주교 인선 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법회는 훈장, 헌화를 시작으로 총지종 추선불사 의례에 따라 진행되었다. 통리원장 범등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49일 하반기 불공을 마무리 지으시느라 전국의 스승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평소 웅맹정진의 불퇴전의 수행 정신을 몸소 실천하신 경관 대정사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극락왕생하시기를 서원합니다.”며 전국에서 동참하신 유가족과 스승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관 대정사는 1928년 무진생으로 1977년 전법관정수계를 받았다. 1978년 육합서원당을 시작으로 교화의 일선에 나섰다. 이후 통리원 총무부장, 재무부장, 사감원 사감위원, 재단 이사, 종정자문위원 등으로 종단의 주요 보직을 원만하게 수행하였다.
관성사= 김중열 기자

신임 중앙종의회 의장 및 사감원장 프로필



신임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

약 력

- | | |
|---------------------------------------|-------------------------------|
| 2001. 7. 31. 향마금 (대법사) 품수 정각사 근무를 명함. | 2010. 2. 1 교정부장에 명함 |
| 2003. 2. 17. 일상사 근무를 명함. | 2012. 5. 1 부산경남 교구장을 명함 |
| 2003. 4. 23. 제8대 중앙종의회 의원에 보선 | 2013. 7. 23 제11대 중앙종의회 의장에 피선 |
| 2004. 12. 20. 화음사 주교를 명함. | |
| 2009. 6. 24 제9대 중앙종의회 의원에 피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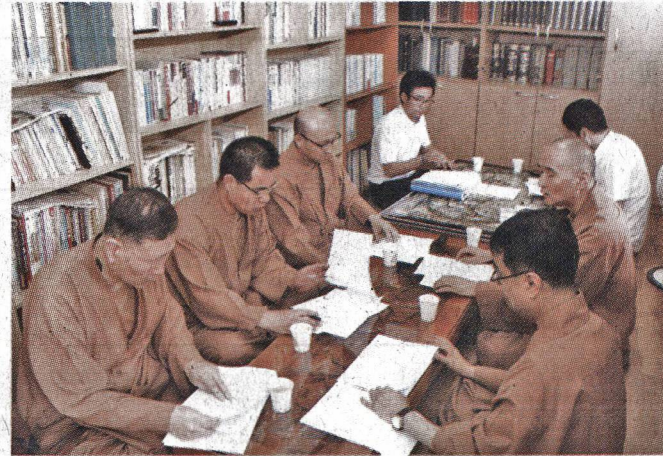
사감원장 법상인 전수

약 력

- | | |
|-----------------------------------|-------------------------------|
| 1986. 6. 2 지송급 인사에 품수. 자석사 주교를 명함 | 2002. 4. 10 제석사 주교를 명 |
| 1989. 7. 27 중앙종의회 의원에 당선 | 2003. 4. 24 사감원 사감위원에 임명 |
| 1993. 5. 13 제6대 중앙종의회 의원으로 당선 | 2009. 6. 24 제9대 중앙종의회 의원으로 당선 |
| 1997. 6. 26 제 7대 중앙종의회 의원 으로 당선 | 2010. 1. 30 자석사주교를 명함 |
| 2001. 5. 22 제8대 중앙종의회 의원으로 당선 | 2010. 4. 29 사감원장에 명함 |
| | 2012. 7. 23 사감원장에 연임 |

불교총지종 원의회 개최.

제11대 중앙종회 제1차 회의 상정 안건 심의



▲ 관성사에서 열린 원의회

총지종 원의회가 통리원장 범등 정사, 총무부장 인선 정사, 재무부장 우인 정사, 교정부장 원당 정사, 사회부장 지정 정사가 참석한 가운데 7월 19일 관성사 주교실에서 열렸다.

이날 원의회는 제11대 중앙종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실무자의 보고를 받고 심의했다.

원의회는 동해중 감사 추천, 복지재단 감사 추천, 유지재단 감사 추천, 실지사 공사의 건, 사원 만다라 제작 시 본존 후불탱화 변경의 건, 괴산 공사 진행 사항, 관성사 재개발 진행 사항, 제3회 통일음악제 진행사항 등의 안건을 보고받고 심의하고 7월 23일 개최되는 중앙종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관성사= 장동욱 계장

불교총지종 한마음 청소년 수련회

7월 25일-27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개최



▲ 에버랜드에서 열린 「불교총지종 한마음 청소년 수련회」

불교총지종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불교총지종 한마음 청소년 수련회』가 7월 25일부터 27일 까지 용인 에버랜드에서 열렸다.

이번 캠프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되어온 「나를 찾는 여행」에 참가한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행 후기를 발표하고, 초청강사의 특강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다시 세웠다. 또한 물놀이와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7월 25일 에버랜드 힐사이드 유스호스텔 세미나실에서 원당 정사의 사회와 우인 정사의 집공으로 임제식이 봉행 되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범등정사는 대회사로 통해

“여기 모이신 학생 여러분들은 다른 학생들보다도 방학을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자연과 호흡하며 배우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라며 알찬 수련회가 되기를 서원했다.

7월 26일에는 「나를 찾는 여행」에 참가한 팀별로 파워 포인트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참가한 여행 목적과 얻은 결과물을 프리젠테이션 하였다. 7월 27일 발표한 종합평가 1등 상인 한마음 상에는 ANG's! 팀이 차지했다 (관련 기사, 화보 6면, 여행 후기 9면)
에버랜드= 공동 취재단

총지종 일원 어린이집 「아토피안심학교」 선정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어린이집 (원장 하재희)이 강남구보건소에서 선정하는 『아토피안심학교』에 선정 되었다.

강남구 보건소는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토피 실태와 환경 조사를 거쳐 일원어린이집을 선정했다. 강남구 보건소는 아토피안심학교로 선정된 어린이집 방문 사업의 일환으로 7월 3일(수) 인형극단이 일원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마술과 아토피인형극을 공연하였어요.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 ✓쉬운 번역!
- ✓간결한 표현!
- ✓읽기 쉬운 원문!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화명 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12,000원 / 169쪽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불교의 선정 20

수념처 수행



철학박사 화령
(중앙교육원장)

수념처는 우리의 감각과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이다. 감각과 느낌을 불교에서는 한 마디로 '감수(感受)'라고 하며 간단히 '수(受)'라고도 한다. 우리가 몸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은 근본적으로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미망에 사로잡혀 전도된 생각을 가진 범부들은 '수(受)'라는 것을 쾌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느낌이 지닌 근원적인 괴로움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수념처의 법문을 설하셨다.

'수(受)'란 무엇인가?

수(受)는 한 마디로 우리의 느낌이다. 느낌에는 즐거운 느낌인 낙수(樂受), 괴로운 느낌인 고수(苦受),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인 불고불낙수(不苦不樂受)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 것은 이른바 육촉입처(六觸入處)인 안(眼)·귀(耳)·비(鼻)·혀(舌)·신(身)·의(意)의 육근(六根)과 여기에 해당하는 색(色)·형(聲)·향(香)·미(味)·촉(觸)·법(法)의 육경(六境)이 접촉할 때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몸으로 가장 현저하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피부를 들 수 있다. 더울 때 시원한 것이와 닿으면 기분이 좋고 피부가 무엇에 찢리거나 긁힐 때는 아픔을 느껴 괴롭다. 이것이 바로 낙수와 고수의 구분이다. 코로 좋은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고 나쁜 냄새를 맡으면 불쾌하다. 이것도 낙수와 고수의 한 예이다. 불고불낙수는 멍하니 걸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나 생각 없이 하품할 때처럼 특별히 즐겁거나 괴롭다는 느낌이 없이 어떤 사물의 느낌을 받아들일 때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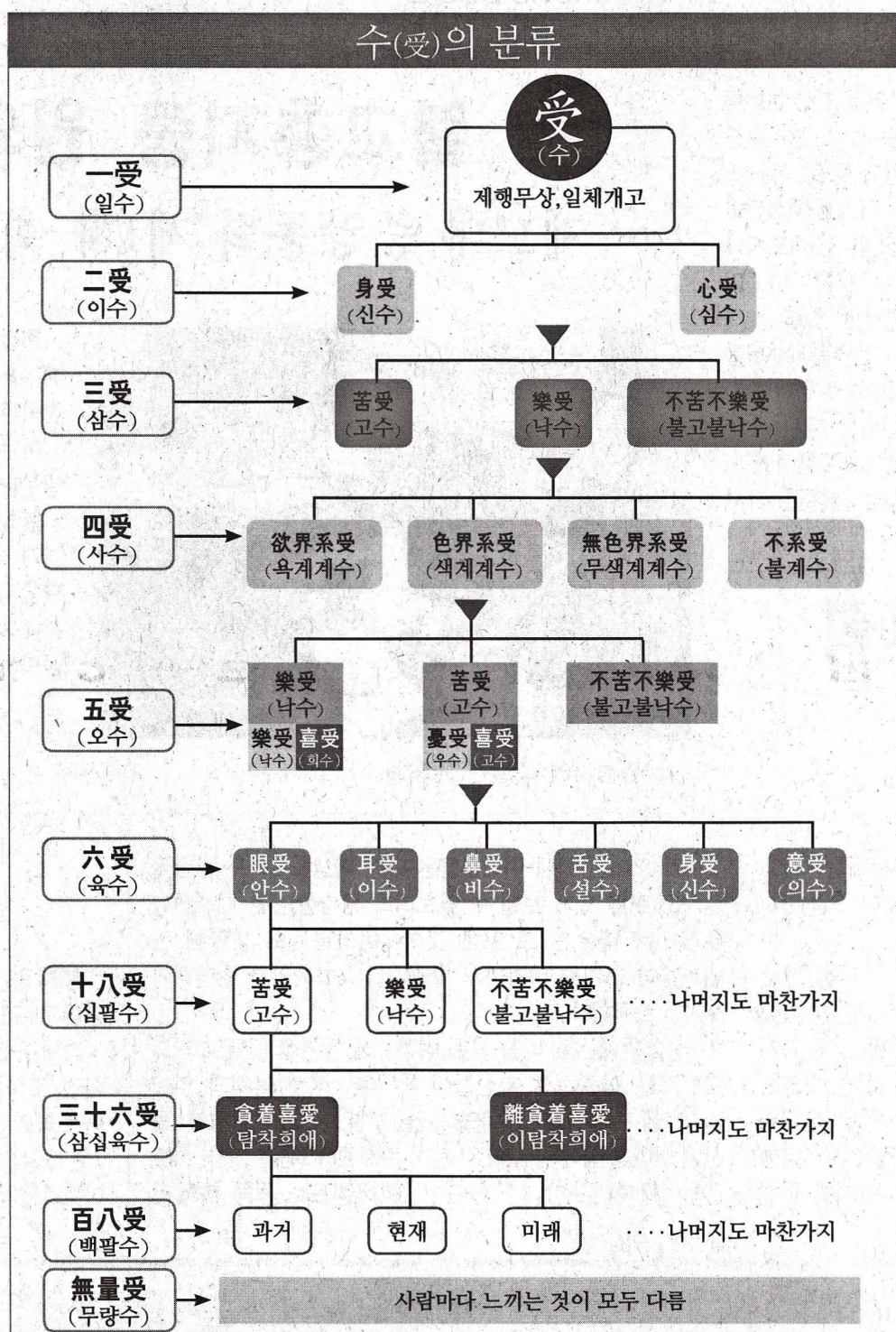
감수작용, 즉 느낌은 자제히 관찰해보면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밟는다. 모든 느낌이 언제나 이러한 과정을 밟는다.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생기(生起), 느낌이 머무는 것을 정류(停留),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소산(消散)이라고 하는데 수념처는 한 마디로 이러한 느낌을 자제히 관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느낌 자체에는 나다, 너다, 중생이다 하는 구분이 없지만 우리가 그 느낌에 자기가, 혹은 남이다라고 하는 관념을 투입하게 되면 느낌은 곧바로 자기나 남이라는 관점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가려운 것은 그냥 가려운 느낌일 뿐인데 '모기가 물어서 나의 손목이 가렵다'라는 식으로 대상을 설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기라는 높은 나를 괴롭힌 괴롭힌 놈이 되어 중오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 소중한 나의 피부가 가려우면서 부풀어 오르면 약이라도 발라줘야겠다는 생각이 나면서 자기의 몸에 애착을 가지게 된다. 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듣고 있는데 누군가가 시끄럽다고 하면서 소리를 낮추라고 방해하면 그 순간 나와 남이라는 구분이 확실히 생기게 된다.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을 방해하는 저 사람은 미워'라는 관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 쪽에서 나와 남이라는 구분을 하게 되므로 거기에서 자연히 탐진치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즐거운 느낌이 드는 것은 더 취하려고 하고 나쁜 느낌이 드는 것은 배척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수작용은 모든 염의 원동력이 된다. 수념처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를 운용하여 느낌을 관찰하고 알아차려서 '느낌[受]'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수(受)'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수는 일종의 연기법이다. 심이연기법에서 보듯이 촉으로 인하여 수[느낌]가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난 수는 좋고 싫은 여러 가지 감정을 일으키며[愛], 거기에 따라 취사선택하도록 한다[取]. 예를 들면, 향수 냄새를 맡는다고 치자. 냄새를 맡는 그 자체는 촉이다. 여기까지는 그 냄새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지만 거의 순간적으로 이것은 좋은 냄새구나하고 느끼게 된다. 이것이 '수(受)'이다. 좋은 냄새라고 느낀 순간 그 냄새의 느낌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애(愛)이다. 그런 다음에는 그 냄새를 더 맡으려고 하든지 그와 같은 향수를 사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 냄새를 추구하게 된다. 그것이 취(取)이다.

그런데 만약 그 냄새가 좋아서 더 맡으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구린내를 풍기

수념처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를 운용하여 느낌을 관찰하고 알아차려서 '느낌[受]'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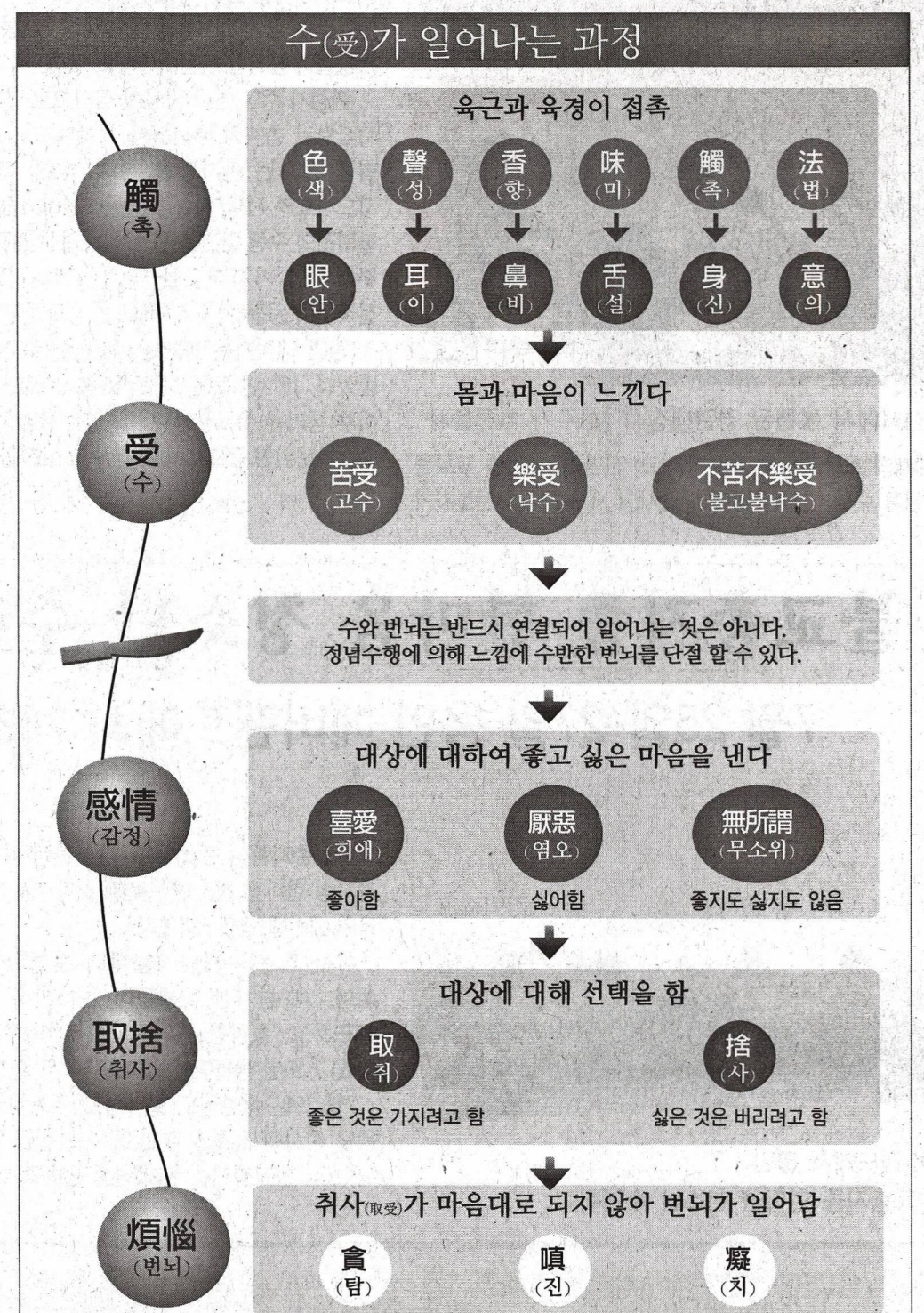
며 방해한다면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 당연히 싫은 느낌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가 맡는 좋은 냄새를 방해하는 그것에 대하여 진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처럼 촉을 통하여 접수된 느낌이 좋고 나쁜 것에 따라 감정이 일어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탐진치가 연속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수는 모든 업력의 원인이 된다. 다시 말하면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좋은 것은 더 가지려고 탐심이 일어날 것이고 가지지 못하면 진심이 일어날 것이고 때로는 무리하게 가지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한다. 나쁜 느낌도 마찬가지이다. 나쁜 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화가 날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어리석음을 저지르기도 마른다. 좋고 나쁜 느낌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불고불낙수(不苦不樂受)의 경우에도 그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일종의 안전감을 주면서 어리석음의 경계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좋은 느낌이란 나쁜 느낌이란 아니면서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이란 그러한 것들에 주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는, 즉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므로 작용한다. 좋은 느낌[樂受]은 탐심을 일으키고 괴로운 느낌[苦受]은 진심을 일으키며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不苦不樂受]은 어리석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수념처를 통하여 느낌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차려서 탐진치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는 것이다.

수(受)의 분류

수는 보통 고수, 낙수, 불고불낙수의 세 가지로 나누지만 이것 말고도 불교에서는 2수, 3수, 4수, 5수, 6수, 18수, 36수, 108수 내지 무량수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만큼 불교는 우리의 마음작용과 느낌 등에 대하여 엄밀하고도 섬세하며 철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따라 수행법도 세밀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냥 "민첩하다!"라고 눈 질끈 감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잡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때로는 일수(一受)를 설하며 어느 때는 이수(二受), 혹은 삼, 사, 오, 육, 십팔, 삼십육 내지 백팔수



를 설하며 무량수를 설하기도 한다. 무엇을 일수라 하는가? 모든 수는 다 괴로움이니 이를 일수라 한다. 무엇을 이수라 하는가? 심수(心受)와 신수(身受)를 이수라 한다. 무엇을 삼수라 하는가? 고수, 낙수, 불고불낙수를 삼수라 한다. 무엇을 사수라 하는가? 이른바 육계수(欲界受), 색계수(色界受), 무색계수(無色界受) 및 불계수(不系受)를 말한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일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受]에 고, 낙, 불고불낙이 있지만 이 모든 느낌은 한결 같이 무상한 것이며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컫는 것이다.

'이수'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느끼는 신수(身受)와 마음으로 느끼는 심수(心受)이며 '삼수'는 고수, 낙수, 불고불낙수를 일컫는 것이다. '사수'는 육계와 색계, 무색계의 수와 함께 모든 느낌을 초월한 불계수(不系受)를 말한다. 즉, 육계계수(欲界系受)는 성욕, 식욕 등을 벗어나지 못한 육계중생이 느끼는 여러 가지 느낌을 말하며, 색계계수(色界系受)는 색계 사선에 머무는 유정 혹은 색계의 제천(諸天)이 선정의 애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느끼는 여러 가지 느낌을 말한다.

무색계계수(無色界系受)는 무색계정에 머무는 중생이나 무색계의 제천이 느끼는 미세한 평등사수(平等捨受)를 말한다. 이 삼계의 수는 비록 미세하고 거칠며 더럽고 깨끗한 구분은 있지만 모두 궁극의 해탈을 얻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系受)'라고 한다. 그러나 '불계수(不系受)'는 바른 깨달음을 얻어 모든 것을 초탈한 성자, 즉 아라한이 느끼는 여러 가지 느낌을 말한다.

'오수'는 삼수 가운데에서 낙수와 고수를 세분하여 낙수와 희수(喜受)로 다시 나누고 고수도 우수(憂受)와 고수로 나눈 것에 불고불낙수를 더한 것이다. '육수'는 육근이 다 수를 가진다고 보고 육수라고 한다. 안수(眼受), 이수(耳受), 비수(鼻受)... 식으로 말하면 '육수신(六受身)'이라고도 한다.

'십팔수'는 육수의 하나하나가 삼수를 지니므로 그렇게 부르며 '삼십육수'는 삼팔수의 하나하나에 탐착희수(貪著喜受)와 (離貪著喜受)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부른다. '백팔수'는 삼십육수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수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부르며 '무량수'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여건에서 느끼는 것이 다르므로 무량수라고 한다.

지 상 설 법

연극이 각본에 따라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인과(因果)노-트는 이 순간에도
한줄 한줄 써 내려가고 있다.



실보사 주교 덕광 정사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각양각색 천태만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운명이니 팔자니 하고 말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고난 팔자대로 사는 것을 운명론 숙명론 등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어 졌으며 어떻게 바꾸거나 고치는지 혹은 방법이 없는지를 생각하려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참회와 불공 진언행을 통해서 아니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꾸고 지우고 증장시킬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닦느냐?
얼마나 바르게 생활하고 진실하게 참회하는가에 따라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인과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실천 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바른믿음으로 바른 생각이 나고 바른정진으로 바른 삶을 살게되는 것이 구경이고 즉신성불이라 믿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 인과(因果) 노-트를 쓰고 고치고 지우는데 용맹 정진 합니다.

인생(人生)은 한바탕 연극과 흡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본대로 움직여야하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고들 하지요. 웬지 자업자득 자작자수의 불교적 입장으로 볼 때 전생에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라 맞춰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연극 같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연극의 3대요소가 배우 관객 대본인 것처럼 대본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가 있어야 하고 그런 연기를 보는 관객이 있어야하는 것이 연극 아닙니까? 즉 인생도 나 혼자서 살 수 없는 남과 함께 드물어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지구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연극이고 인생이 아닐까요.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모든일들이 배우의 실제 성격과 모습과는 상관없이 각본에따라 연기하는 것을 보면 각자의 인생은 연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주어진 배역에서 각자의 취향이나 싫고 좋음 따위는 생각지 않고 각본에따라 주연 조연등이 충실하게 불행한 것, 다행한 것, 등을 연기하게끔 짜여있는 것을 볼때 드라마 연극은 연출자에 의해서 각본에 따라 이루어 지고, 인생은 각자가 연출자가 되어 스스로 각본을 쓰고 결과도 책임도 자신이 받고 저야하는 것이 거의 흡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생은 한바탕 연극이니 연극처럼 살자.”

드라마 연극이 모두가 괴롭고 슬퍼고 고달프기만 한다면 누가 배우를 할것이며, 인생이 아프고 고통스럽기만 한다면

누가 삶을 아등바등 살려고 하겠습니까?

드라마나 연극처럼 삶도 자기 스스로가 쓰는 시나리오 (각본)에 따라 연출자가 되어 지우고 각색하여 연기하고 사는 것을 보면 인생도 연극이니 연극처럼 살자 하는가 봅니다.

주연이 있으면 조연 엑스트라가 있듯이 내가 주연이라면 조연이 있어야 주연이 빛날 수 있고 내가 조연이면 주연이 있기에 내가 존재 하는 것처럼 그 누가 되었던 공업(共業) 공생(共生)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자 연극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자식간에 서로 주연 조연이 되기도 하고 사회에서도 사회의 일원으로 조연이 되었다가 주어진 나의 임무에 대해서는 주연이 되는 것처럼 주연이던 조연이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각본과 배역에 충실해야하는 것은 내가 심거나 짓거나 쓰거나 하는 모든 인(因)지음은 결국 과(果)로 나타남이니 그것은 내가 받아야하는 인과법(因果法)의 진리임을 알아 좋은 인을 심고 짓는데 노력 합니다.

이러한 인(因)지음과 모든 것들의 각본들을 지금 내가

한줄 한줄 인과(因果)의 노-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의 인을 알고자 하면 금세에 받는 것이 그것이요, 후세에 과를 알고자 하면 금세에 짓는 것이 그것이다.”

“불교총전 237p 인과경 ”

인생을 살면서 행복과 기쁨을 받는것도 아픔과 고통을 받는것도 이전에 내가 지은 내가 쓴 각본대로 받고 사는 것, 즉 연출은 내아닌 다른 그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짓고 한 것이다.

인생이나 운명이 자기 스스로짓고, 스스로 심는것이 그 인(因)이며 그 인(因)지음에 스스로 받는 것이 그 과(果)이며 크고작을 많고적음을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그런 인과법(因果法)의 각본을 내가 참회와 불공 통해 몸과 입과 뜻으로 심고 짓는 모든 인을 선업의 공덕으로 바꾸고 고쳐 쓸수 있는 연출자가 되도록 용맹 정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과(因果) 노-트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성도합니다.

진리의 여울

자경문(自警文)

몸이 여섯 도적을 따르므로
악취에 떨어져서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마음이 일승(一乘)을 등졌으므로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세상을 만나지 못했구나.
이제 또 다행히 사람의 몸을 받았으니
부처님이 안 계신 말세를 만났으니
아, 슬프고 애달프다.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고
그러나 그대가 반성하여
애착을 끊고 출가하여
발우를 받아 지니고 범복을 걸치고

세속을 벗어나는 지름길을 따라
무루의 미묘한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용이 물을 얻고
범이 산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 수승한 도리는 말로 다하지 못하리라.

『초발심자경문』 가운데 「야운 비구
술(野雲比丘述)』 자경문 중(中)에서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화령 정사 옮김



불교총지중 인사발령

중앙종의회 의장 - 수현
중앙종의회 부의장 - 범우
사감원장 - 범상인
밀교연구소장 - 범경
이상 8월 1일 자

통리원 인사발령
총무과장 - 장동욱교무

계 장 - 배공주교무
이상 8월 1일 자

종무원 정식발령

백해련교무(부서 유지재단)
이상 7월 29일 자



관세음보살
예찬문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불교총지중 법장원

화령 편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구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수행법

불교총지종 한마음 청소년 수련회

떠나자, 버리자, 그리고 나를 찾자

불교총지종은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용인 에버랜드에서 한마음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청소년 인성향상프로그램으로 진행한 '나를 찾는 여행'에 참가한 240여명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총지종 통리원장 법등 정사와 집행부, 정각사 법상 정사와 동해중학교 김재근 선생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제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수련회의 막을 올렸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대회를 통해 "시작이 즐거우면, 끝도 즐거운 법입니다. 즐거운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행하고 더욱 적극적이며 모든 일에 앞장서는 자세로 수련법에 임해 주시기를 서원합니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수련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첫날은 입제식 이후 캐리비안베이에서 물놀이로 한여름의 더위를 식히고 잠자리에 들었다.

둘째날에는 "우리도 모르는 나쁜 습관"이라는 주제로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오우경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컴퓨터 게임과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는 방법과 그 예방법에 대해 다양한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련회의 하이라이트인 "참나를 찾는 여행" 후기 발표 순서를 가졌다.

총19개 팀이 참가한 발표는 총지종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 총무부장 인선 정사, 재무부장 우인 정사, 교정부장 원당 정사, 정각사 법상 정사가 심사를 맡았다.

다양한 프로젝트 기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여행을 발표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장면을 봤을 때, 부모님들의 학창 시절과는 달리 발전된 IT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실력에 놀랐을 것이다.

심사를 맡은 총지종 중앙교육원장 화령정사는 "발표기술, 내용, 내용 구성 등을 꼼꼼히 평가하여 심사했습니다. 그러나 우열의 가리기 보다는, 협동심과 인성 개선의 향상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며 심사의 총평을 말했다.

영예의 대상은 ANG's (발표자: 동해중 최재준 군) 팀이 차지해,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

바쁘고 정신없이 짜여진 일정 속에 진행된 이번 수련회가 아무런 사고 없이 마치게 된 것은 교도여러분의 성원과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피로 이를 수 있었다. 내년에는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동참 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서원한다.



▲ 에버랜드 입구에서 단체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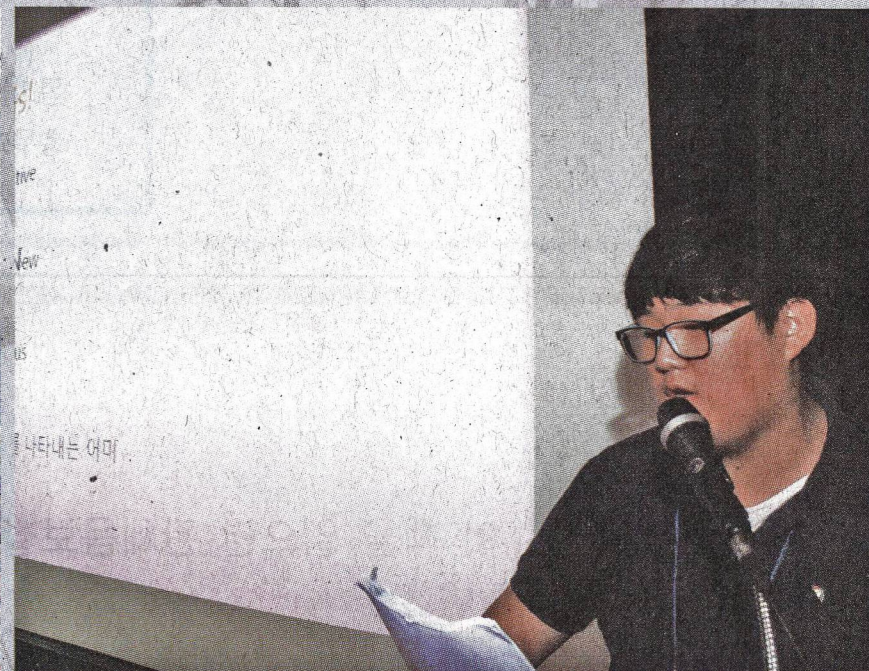
▲ 한마음 캠프 입제식



▲ 총지종 법등 통리원장 대화사



▲ 캠프를 마친 동해중학교 참가단



▲ 후기발표 대상수상팀 ANGs (발표자 최재준)



▲ 캠프에 동참하신 총지종 스승님들



▲ 즐거운 에버랜드 입장



▲ 섬머 스프레쉬와 함께



▲ 호암미술관에서

총지 42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나의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방생은 이러한 자각 즉, 연기적 세계관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업의 무게로 중생계를 윤회하는 것이다. 불교 총지종 교도들은 생명의 소중함과 중생의 자유를 서원하며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전국의 사원에서 봉행된 총지종 전통 불공법인 “하반기 49일 불공” 을 지난 5월 28일 입제하여 7월 15일까지 49일간 국가와 유언무연의 조상을 위한 불공을 전 교도가 시행하였다.

교도들은 7월 16일 방생을 위해 전국 각지로 떠났다. 총지사는 강원 동해시 주문진 소돌해변, 실지사는 부여 구드레 나루, 부산, 경남교구는 전북 무주리조트,

충청.전라 교구는 무주 반디랜드에서 법회를 가졌다. 대구, 경북 교구는 각 사원 별로 방생법회를 봉행하였다.



▲ 총지사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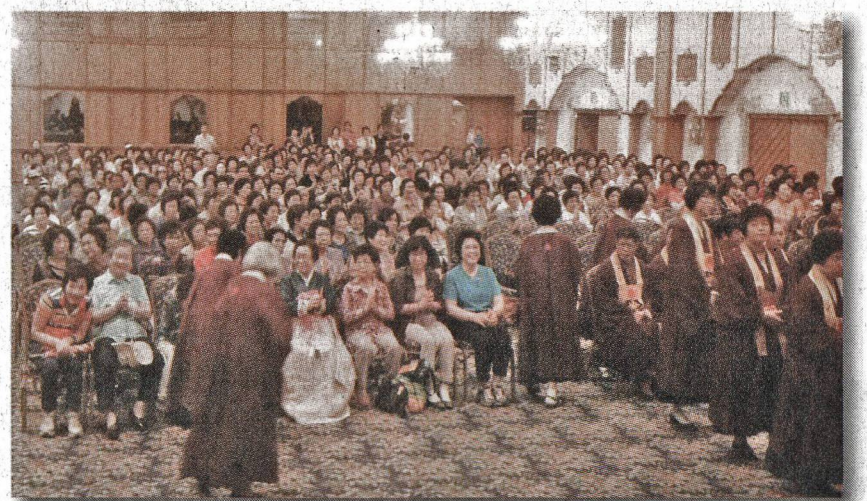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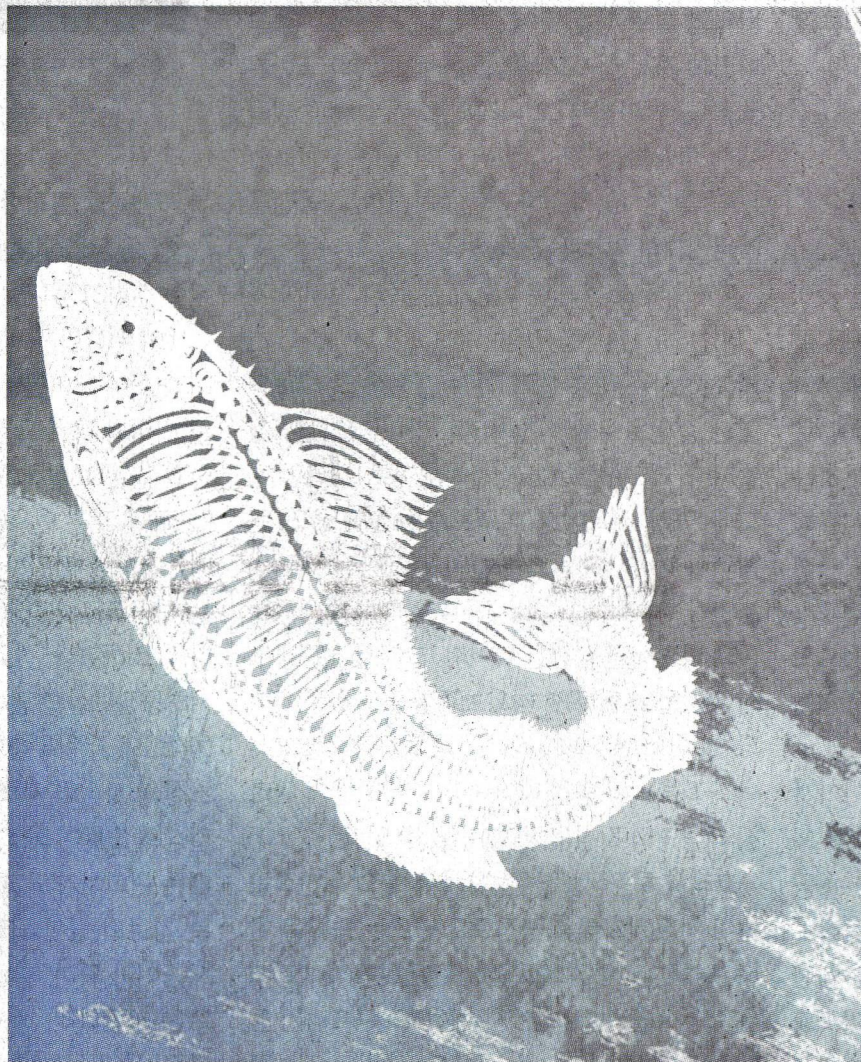
▲ 대구, 경북 교구 하동 방생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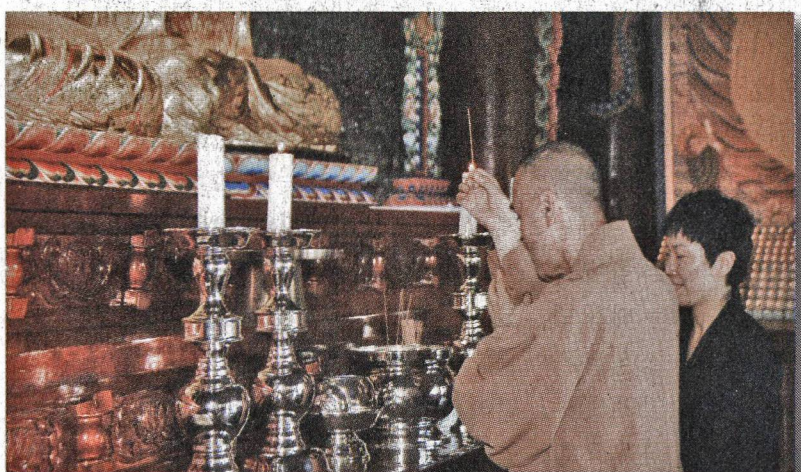
▲ 부산, 경남교구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무주리조트)



▲ 총지사 방생법회



▲ 부산, 경남교구 무주 호국안민기원 훈향정공



▲ 총지사 등명낙가사 참배



▲ 종경법어를 대독하는 법상인 사감원장



▲ 실지사 부여 방생대법회



▲ 충청.전라교구 호국안민방생대법회



▲ 충청 전라교구 장기자랑



▲ 총지사 주문진 소돌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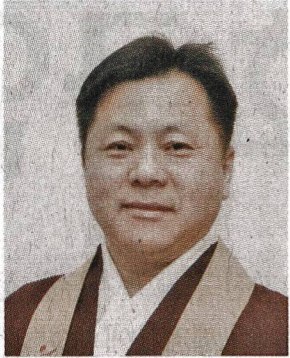


▲ 포항 수인사 방생대법회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16)

허공장보살 (虛空藏菩薩)



법경 정사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은 허공처럼 무한한 자비를 지닌 보살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은 ‘허공처럼 무한한 자비를 지니고 있는 보살’이다. 중생들의 서원을 들어주며 특히 지혜와 복덕을 한량없이 베푸는 보살이다. 그래서 손에 많은 보물들을 지니고 있다. 오른 손은 보배 칼을 지니고 있고, 왼 손은 복덕을 뜻하는 연꽃과 여의주를 지니고 있다. 대개 보배 칼의 지물(持物)은 지혜를 상징하고, 연꽃과 여의주의 지물(持物)은 성취를 나타낸다. 머리에는 오지(五智)의 보관(寶冠)을 쓰고 있다. 보관은 그리 흔하지 않고 대개 관세음보살과 허공장보살이 쓰고 있다. 허공장보살이 지혜와 자비로써 일체중생을 교화한다는 점에서 관세음보살과 흡사하다. 허공장보살은 복과 재물을 관장하기 때문에 옷이나 치장이 가장 화려하다. 아마 보살 가운데 가장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보살이 관세음보살과 허공장보살이 아닌가 생각된다. 두 보살은 참으로 닮은 점이 많다.

허공장보살은 복과 지혜의 양문(兩門)을 구축하신 유일한 보살이기 때문에 오른손에는 업장을 베는 보검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복과 재물



▲ 허공장보살 (동경국립박물관)

을 상징하는 여의보주를 들고 머리에는 다섯 부처님의 위신력을 상징하는 오불관을 쓰고 있다. 이 허공장보살에 대해 『관허공장보살경』에서는 ‘키가 20유수(由旬)으로 관세음보살과 같은데, 이 보살은 가부좌를 맺고 앉아서 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다. 그 여의주는 모든 법음(法音)을 내어 계율과 합해진다. 이 보살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비구의 모습 또는 모든 색상(色像)을 하고 꿈속에서나 선정할 때 마니주인(摩尼珠印)으로 그 사람의 어깨에 죄를 얹어 준다는 도장을 찍어 준다.’고 하였고, 『허공장보살경』에는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명호를 부르고 성심으로 예배 공양하면, 그를 위해 가지가지로 법을 설하여, 갖가지의 이익을 얻어서 마침내 무상도(無上道)를 얻게 한다.’고 하였다. 소원성취 뿐만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보살이다.

자비와 지혜로써 한량없는 복덕을 베푸는 보살

허공장이라는 이름은 지혜와 자비가 허공(虛空)과 같이 무한(無限)하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허공과 같이 크고 넓은 지혜와 자비(慈悲)로써 중생(衆生)의 모든 서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보살이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이다. 다시말해서 허공장(虛空藏)이란 ‘하늘의 허공처럼 자비와 지혜가 광대무변(廣大無邊)하다’는 의미이다. 이 보살이 커다란 지혜와 복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본에서는 기능과 예술의 재능과 지식을 넓혀준다고 믿고 있다.

허공장(虛空藏)은 산스크리트어로 ‘아카사 가르바(Akasagarbha)’라고 하며, 허공장 외에 ‘허공임(虛空孕)’이라고도 번역하였다. 허공장보살을 설하고 있는 경전으로는 『허공장보살경』이 있는데, 5세기 초 요진(姚秦) 때 계빈국(현 카슈미르지역) 출신의 학승 불타야사가 번역한 것과 유송(劉宋) 때 담마밀다가 번역한 것이 있다. 담마밀다가 번역한 본은 신주(神呪)라는 말을 넣어 『허공장보살신주경』이라고 하

였다. 그리고 6세기 말엽 수(隋)나라 때에 인도에서 온 학승 사나굴다가 번역한 경이 다시 나왔는데 이 역본은 허공장보살을 허공임보살(虛空孕菩薩)이라 번역하여 『허공임보살경』이라 하였다.

이 허공장보살은 서방의 80억 항하사(恒河沙)를 지난 곳에 일체향집이라는 불국토에 계시는 승화부장여래(勝華敷藏如來)의 부촉을 받고 사바세계로 나투신 보살이다. 『허공장보살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허공장이 승화부장여래의 처소에 가서 여쭙니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동쪽으로 80항하의 모래 수효만큼이나 많은 나라들을 지나가서 사바(娑婆)라는 세계가 있다. 이 사바세계는 오탁(五濁)으로 더럽혀진 나쁜 국토로, 이 나라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너도 지금부터 그 나라에 가서 석가모니불을 예배 공양하고 바른 법을 받아 가져서 그 나라의 모든 악한 중생을 위해 파악업장다라니경(破惡業障破惡業障陀羅尼經)을 설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며, 허공장을 사바세계로 갈 것을 권하였다.」

여래의 권고를 받은 허공장은 몹시 기뻐하며, “저는 석가여래를 갈양(渴仰)하여 예배하고 친히 설하시는 바른 법을 받아 가져서 그 국토의 악한 중생을 위해 파악업장다라니경을 설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사바세계로 내려간다. 그때 멀리 서쪽에서 여의보주(如意寶珠)의 큰 광명이 나타나 사람과 하늘의 온 세상을 두루 비추었다. 이 여의보주의 대광명은 바로 허공장보살의 나투심을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허공장보살은 지물(持物)로써 여의보주를 들고 있는 것이다. 그 여의보주의 대광명은 곧 허공장보살의 복덕과 지혜의 광명을 나타낸다. 사바세계에 내려진 대광명의 길상(吉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허공장보살은 승화부장불의 위신력을 빌어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특히 대자비심으로 일체 재난을 몰아내고 지옥의 중생을 구제한다. 지옥중생의 구제라는 점에서는 지장보살과 비슷하지만 자비와 지혜로써 모든 원을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허공장보살은 지장보살과 더불어 남방 보생여래



▲ 일본 제호사의 허공장보살

불의 협시보살이고 8대보살의 한 분으로 모든 복과 재물을 관장한다.

『허공장보살경(虛空藏菩薩經)』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이 위대한 광명의 길상(吉祥)은 허공장보살이 이곳에 오기를 원하고 있는 상(相)이다. 그는 큰 바다와 같은 모든 삼매(三昧)를 갖추고, 수미산과 같은 보살해(菩薩海)를 굳게 지니고, 금강(金剛)과 같은 인욕(忍辱)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용맹 정진하는 상은 질풍과 같고, 지(智)는 허공과 같고, 혜(慧)는 갠지스강의 모래와 같다.」고 하였다.

허공장보살의 권능(權能)과 지혜(智慧) 복덕(福德)의 무량무한함을 보여주고 있다. 허공장보살의 자비와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길상의 그릇이 되고, 두려움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서 귀의처가 되고, 번뇌에 들볶이는 사람에게서 감로의 물이 되고, 선근을 심는 사람에게는 지팡이가 되며, 열반에 이르는 다리,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배가 되고, 맑은 거울처럼 선악의 업을 비추고, 삼고(三苦)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는 뛰어난 양의(良醫)가 되고, 피로한 사람에게는 침상이 되며, 악한

생각을 끊는 칼도 되고, 선근을 자라게 하기를 범날의 늪과 같고, 모든 악마를 항복받아서 모든 공덕이 생기게 하는 지혜의 창고다.

또 허공장보살은 혹은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주어 고치게 하고, 혹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부를 주고,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사람, 딸을 낳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아들과 딸을 낳게 해주고, 그밖에 모든 사람의 괴로움을 풀어주는 등, 원하여 구하는 사람에게는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내 몸과 목숨을 버려서라도 모두 이루게 해준다.

세존께서 말씀하신다. “허공장보살은 대자대비를 갖추고 있어서, 능히 사람들의 위급과 재난을 구원해주고, 사람들의 죄와 어둠에 청정한 광명을 주는 좋은 도사이다. 마치 여의주가 뜻대로 모든 보배의 비를 내리듯이, 그 광명은 모든 중생의 암흑을 비추어 중생으로 하여금 광명을 얻게 하는 대자대비의 구원(救援)의 표상이다.”

허공장보살은 허공과 같은 자비심과 대지혜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시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하고 계신다. “허공(虛空)과 같이 넓고 큰 자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대광명의 지혜를 얻은 것이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중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계) 불교총지중 유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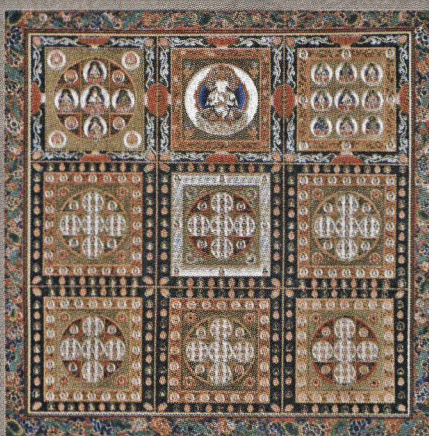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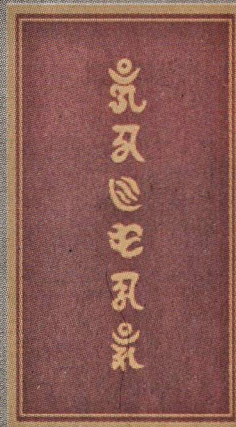


태장경 만다라 _ 胎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생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여행 후기 대상 ANGs!(Attractive&Nice&Gorgeous!)s "가족과 함께 하기에 시련도 감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불교총지종의 지원으로 “참된 나를 찾는 여행”과 “한마음 캠프”가 진행된다는 말에, 들뜬 마음으로 신청서를 받아들였다. 학교대표로 나가게 된 부산 시수학과학경시대회와 거짓말처럼 겹치는 것이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뜻밖의 희소식이 들려왔다. 나와 같은 상황인 친구들, 선생님이 계셨던 것이었다. 그렇게 나를 포함하여 경시대회에 참가한 4명과, 음악교과서 편집 작업으로 인해 점심때부터 시간이 나시는 오영주 선생님, 그 외 2학년 후배 2명과 3학년 친구 2명으로 조금은 특별한 우리조가 구성되었다. 팀명은 앙스!(ANGs!) 입에도 짹짹 붙고 숨은 뜻도 좋은 팀명이라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D-day인 6월 1일 오후, 시험을 성공리에 마친 태정아, 두원이, 형타이와 나, 해운대에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긴 오영주 선생님,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합류가 늦어진 광수까지, 6명이 동래역 모였다. 근처의 터미널에서 이동하여 진주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맨 뒷자리를 점령한 우리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설렘이 묻어있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캠프를 원하고 있었다. 최상의 라인업과 최고의 선생님으로 구성된 우리 조인만큼, 출발부터 흥이 넘쳤다.

역에 하차한 후, 10분정도 도보로 이동하여 진주성에 도착하였다. 진주성에 와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우리 옆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어느새 진주성 입구가 눈앞에 펼쳐졌다. 먼저 출발한 우리 조원 태형이와 승환이, 수용이, 소나무와 프링글스 김재근 선생님이 우리가 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셨다. 감격적인 재회를 마친 우리는 우리의 정서와 일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진주성속으로, 참된 나를 찾는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진주에서 자라신 김재근 선생님의 설명으로 축석루를 지나, 성곽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진주성의 곳곳에서 우리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축석루에서 논개가 왜적을 끌어안고 몸을 던졌다는 호수를 바라보고 있자니, 웬지 가슴 한쪽이 뭉클했다. 나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없지만, 논개의 정신을 본받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남는 것은 사진뿐이라는 생각에 추억도 많이 남겼다. 그리고 보니 도시의 건물 숲을 떠나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에, 좋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며, 걸었던 것도 제법 오랜만이었다. 가끔씩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재충전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동안 이런 일, 저런 일로 너무 속 마히게 지내 오지 않았던가! 묵혀있던 숨이 그제야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진주성에게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고,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목면시배지로 이동하였다.

세워주었다고 한다. 문익점은 여러모로 참 배울 것이 많은 위인인 것 같다. 이전에는 문익점하면 목화만을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목면시배지에서 이런 저런 많은 것을 깨닫고 반성하였다. 마음이 한 뼘은 자란 기분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협동심을 기르기 위하여 우리 조 모두 함께 점프샷을 찍은 후, 목면시배지를 떠났다.

숙소로 가기 전, 우리는 근처의 천연잔디구장이 있는 이름 모를 초등학교에 잠시 방문하였다. 이런 저런 재미난 사진들도 찍고 잠시 휴식을 가졌다.

미션과 명상 그리고 즐거운 밤

ANG's는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이자 숙소인 지리산 청소년수련원으로 향하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한 이름에 웬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설마 하였는데, 그 설마가 기어코 사람을 잡고 말았다. 약 5년 전 초등학교 때 왔었던 그 수련원이었다. 내가 그다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내 일생 최악의 수련원이었던 만큼, 걱정이 앞섰지만, 5년이면 대통령도 바뀌는 긴 시간이 아닌가. 어쩌면 재건축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걸어봤다. 하지만 왜 안 좋은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는 것인가. 더러운 화장실과 벌레와 공동계약을 맺은 숙소까지.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놀러온 캠프가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기에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다.

숙소를 배정받아 짐을 풀어놓고, 영양가 넘치는(차마 양심에 찔려 맛있다고는 못하겠다.) 저녁식사를 섭취한 우리들은 곧 저녁 활동에 들어갔다. 사실 이번 활동이 캠프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었다. 바로 조별 미션수행과 명상이었다. 캠프의 테마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인 만큼 나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정말 중요했다. 우리 조의 미션은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기”였다. 그렇게 웃음이 넘치고 활기차던 우리조도 주제가 밝혀지고 개인 시간이 주어지니 모두 적는 것에 몰두하여 자연스레 정숙이 되었다.

사실 세상은 감사할 것투성이다. 복권에 당첨되었다거나, 돈을 주었다거나, 중요한 시험에서 적은 문제가 우연히 맞았다는 것과 같은 일 이외에도 돈을 잃어버리거나, 버스를 놓친다거나, 집에 휴대폰을 두고 나온 것과 같은 얼핏 보기에는 짜증나고 부정적



라 생각할 것이 많았다. 오늘 배운 점과 깨닫고 느낀 것을 되새겨보고 내 생활을 되살펴보며 반성하고 있으니, 어느새 기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분이 다 지나갔다. 다시 뜬 아이들의 눈에 감을 적에는 없었던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다.

명상을 끝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우리의 멘토 오영주 선생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생활이나 여러 고민들을 이야기하다보니 시간은 금세 지나갔고,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소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끊었다. 노크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신나있었다. 기대를 하며 문을 연 우리 앞에는 치킨이 있었다. 닭 냄새가 나자 조별미션과 명상 등 다소 진지한 활동으로 인하여 조용해져 있던 아이들의 눈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환희에 젖어 소리를 질러댔고, 환영의 댄스를 추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배불리 먹은 저녁에 배가 차있음에도 8명이라는 최소의 인원으로 닭 여섯 마리를 게논 감추듯이 없애버리는 기적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우리의 예산은 한 순간에 사라져버려 오영주 선생님께서 사비로 매우셔야했다는 슬픈 전설이 있지만,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미친 듯이 먹어서 배가 납산 만해진 우리는, 간단한 세면을 한 후 열두시까지 오영주 선생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취침에 돌입하였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잘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보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었지만, 낮에 친 경시대회와 오늘 했던 활동들의 피로와 함께 온 몸을 치킨으로 가득 채운 후폭풍으로 나타난 식곤증의 연합공격으로 인해 하나 둘씩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첫째 날을 마무리하였다.



숨겨진 문익점선생의 다른 모습

우리는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하여 목면시배지에 도착하였다. 목면시배지는 우리나라에 목화를 들여온 것으로 유명한 문익점 선생이 목화를 재배하고 면을 처음으로 생산하던 곳이다. 문익점이 목화를 들여왔다는 것은 어릴 적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고,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적인 것이지만, 책이나 매체를 통한 간접경험이 아닌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기대되었다.

문익점은 위업을 무릅쓰고 우리나라 백성들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나라의 목화씨를 들여온 애국자로써 유명하다. 그러나 그분이 존경받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나라에 목화를 들여온 첫 번째 사람이 문익점이라는 증거는 없다. 이 전에도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그쳤다. 그들은 목화씨를 들여오기만 할뿐 성공적으로 수확하여 면직물과 생산방법을 대중화시켜 백성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익점은 해냈다. 숨겨져 있던 수천 평의 목화밭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목화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이번 기회에 볼 수 있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철이 지나는 바람에 목화를 보지는 못하였다. 실제로 풀을 베시며 일을 하고 계신 농민분이 한 분 계셨지만, 바쁘신지 아쉽게도 대화를 할 수는 없었다.

가이드본의 유익한 설명을 5분정도 듣고, 우리는 본격적인 구경에 나섰다. 우선 박물관을 돌아보았다. 목화씨의 종류나 재배방법뿐만 아니라 면을 생산하는 과정을 커다란 모형이나 동영상으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친 우리는 실제 목화밭으로 나갔다. 넓게 펼쳐진 수천 평의 목화밭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목화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이번 기회에 볼 수 있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철이 지나는 바람에 목화를 보지는 못하였다. 실제로 풀을 베시며 일을 하고 계신 농민분이 한 분 계셨지만, 바쁘신지 아쉽게도 대화를 할 수는 없었다.

가이드본에 따르면 문익점은 엄청난 효자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삼년동안이나 산소 곁에서 먹고 자며 지켰다는 것이다. 삼년 상을 치루던 중, 왜적이 들어와 백성들을 학살하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모두가 집을 버리고 피난을 갈 때에도 문익점은 목욕하 어머니의 묘를 지켰다고 하고, 이에 왜적마저 감동하여 다행히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높이 평가하여 나라에서는 효자비각이라는 비석도

으로만 보이는 일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감사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연속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에도 역시 감사할 줄 알아야한다.

나 역시도 감사한 것이 참 많지만, 현재 우리 가족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고, 오늘 방문하였던 목면시배지의 주인공 문익점의 효성이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아, 부모님을 비롯한 우리 가족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로 하였다.

골수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갑작스레 악화된 동생의 건강에 우리 가족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맞닥뜨려야 했다. 다행히도 내 골수가 동생의 골수와 꼭 맞아서 한 시름 덜 수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요즈음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와 동생을 잘 못 본다는 작은 불편한 외에는 문제 될 것이 없는 나도 이렇게 슬프고, 지치고 힘이 든데, 당사자이자 어린 나이에 지독한 병마와 씩씩하게 싸워 나가고 있는 내 동생과 동생을 간호하기 위해 같이 무군실에 들어가서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밖에 나오지 못 하시면서도 우리 걱정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하질 날이 없으신 어머니, 동생 간호하러 우리 뒷바라지하러 하루에도 몇 번씩 양산과 부산을 오가시며 고생하시느라 요사이 헬썹해지신 우리 아버지, 고 3이라 신경 쓸 것도 많고 힘든 시기임이 분명한데도 혼자서 활기차게 뛰든지 잘 해나가고 있는 우리 형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는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슬퍼서 눈물이 난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다. 동생의 것과 꼭 맞아줘서, 내가 형으로써 이런 영광스럽고 소중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내 골수한테도 너무 고맙고, 어른스럽게 씩씩하게 잘 이겨나가고 있는 내 동생에게도 너무 고맙고, 고생 많으신 우리 부모님과 형까지 모두 너무 감사하다. 고기는 두드릴수록 연해지지만, 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 우리 가족은 분명 철과 같은 가족이다. 이러한 시련과 역경 끝에는 분명 더욱 성장한 우리 가족이 있으리라.

늘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이렇게 글을 적어 내려가고 떠올려보니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나를 비롯한 친구들도 마무리를 해갈 때 즈음 김재근 선생님이 우리 방을 방문하셨다. 활동 중 하나인 명상을 하기 위해서였다. 넓은 방에 둘러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였다. 오늘은 이런 저런 느낀 점이 많은 하루이기도 하고, 간만에 가지는 명상시간이

자신의 영달보다는 진정한 학자로

해가 떠오르는 이른 새벽, 우리는 기상을 하여 급속도로 아침식사를 마무리 지은 후, 오늘의 일과를 시작하였다. 난 잠자리가 바뀌어도 어디서든 잠을 잘 자는 편인데도, 전 날 밤에 이상하게도 잠을 제대로 못자서 상쾌가 정상이 아니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남명조식유적으로 향하였다. 조식은 퇴계 이황과 함께 16세기 영남파의 쌍벽을 이루는 학자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머리가 뛰어나, 벼슬길에 오를 기회를 여럿 얻었으나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벼슬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매진하였다고 한다. 그는 많은 뛰어난 제자들을 키워내서 조선시대 학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침이라 비몽사몽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날 문익점이 준 인상이 너무 강해서인지, 남명조식유적에서는 전날만큼 강력한 감명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조식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꼭 본받아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조식은 참 맛있는 사람인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이 학문을 즐기고 학문에 종사하기보다는 돈이 되거나 안정적인 공무원, 의사 등의 직업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그는 벼슬길에 오를 기회가 많았음에도 평생을 오로지 학문에 매진하고 제자를 통해서도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니, 진짜 학문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진짜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닌, 단지 부자만을 꿈꿨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지난날을 반성하며, 남명조식의 반란쯤이라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다.

남명조식유적 탐방을 마친 우리는 마지막으로 겹외사에 들렀다. 겹외사를 둘러보며 지난 1박 2일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경건히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로써 1박 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우리들은 끝이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7월에 있을 한 마음 캠프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고 싶은, 가야만 하는 해외여행을 기약하며 부산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우리의 모습에는, 출발할 당시의 모습에는 없었던 무엇인가가 묻어있었다.

※ 여행후기의 일부분은 약간의 편집을 하였습니다.

다시 **우리시조** 읽는

오늘도 날 밝혔다

지은이: 송강 정철



송강 정철의 16수짜리 훈민가의 열세 번째 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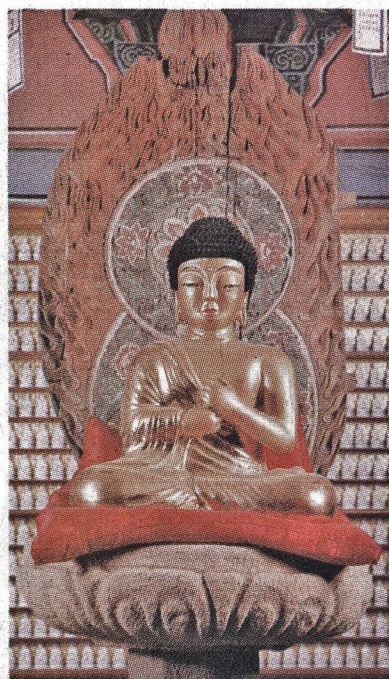
훈민가는 정철이 선조13년에 가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것이다. 첫 수는 '아며님 날 낳으시고 어며님 날 기르시고'로 시작하여, 마지막 수는 '이고진 저 늙은이 집 풀어 나를 주오'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정철은 일반 서민들이 쓰는 쉬운 말로 농촌의 생활을 그리면서 유교적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철은 관료로서의 위치도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국문학에서도 한자리를 점한다. 시조뿐 아니라 관동별곡, 사미인곡 등 빼어난 가사 작품을 여럿 남긴 뛰어난 작가이다.

편집, 정리 = 편집위원회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보물 제174호, 청양 장곡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및 석조대좌(靑陽 長谷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및 石造臺座)

소재지 : 충남 청양군 장곡사
시 대 : 고려시대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장곡사 상대웅전 안에 모셔져 있는 철조비로자나불과 석조대좌는 진리의 세계를 두루 통솔한다는 의미를 지닌 비로자나불을 형상화한 것이다.

삼각형에 가까운 작은 얼굴에는 긴 눈썹과 가는 눈, 작은 코와 입 등이 표현되어 다소 세속화된 모습이다. 두 손은 가슴 앞에서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데 이는 비로자나불만이 취하는 독특한 손모양으로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의미를 지닌다.

불상이 앉아 있는 대좌(臺座)는 원래의 것이 아니라 석등 대좌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불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색한 모습이다. 부처의 몸 전체에서 나오는 빛을 상징하는 광배(光背)는 나무로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평범한 얼굴, 빈약한 체형, 허술한 오른쪽 어깨의 처리 등에서 9세기 중엽 비로자나불 양식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433호)과 거의 같은 유형의 작품으로 보인다.

자료제공=문화재청

VISUAL
불교총전

제 50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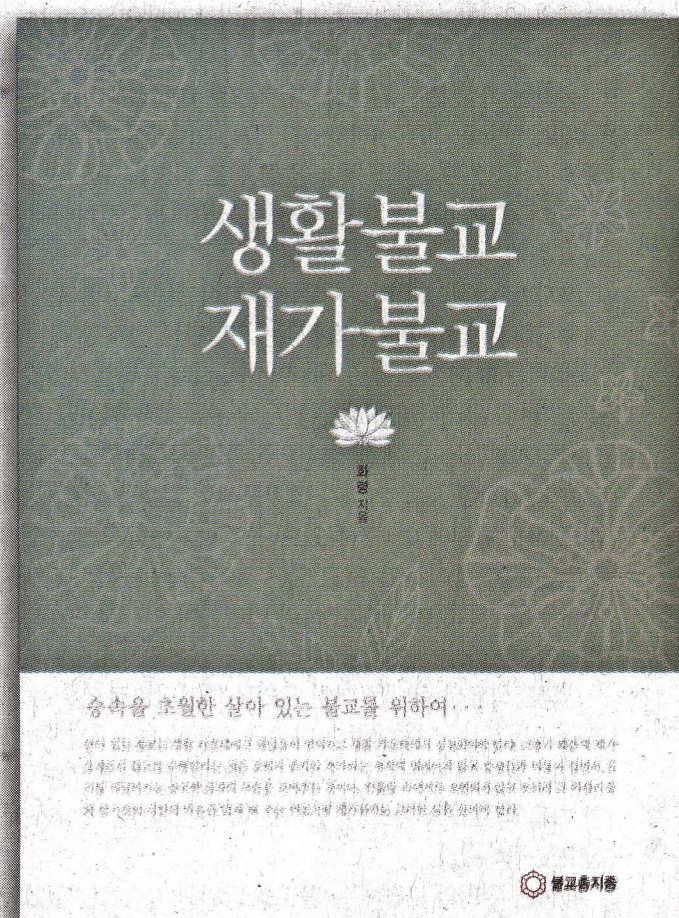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홀라.kr>



생활불교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실천방향을 제시한 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필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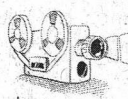
승속을 초월한
살아있는 불교를 위하여

생활불교
재가불교

화령 저 | 불교총지종 발행
정가 10,000원 | 법보시가 6,000원 (10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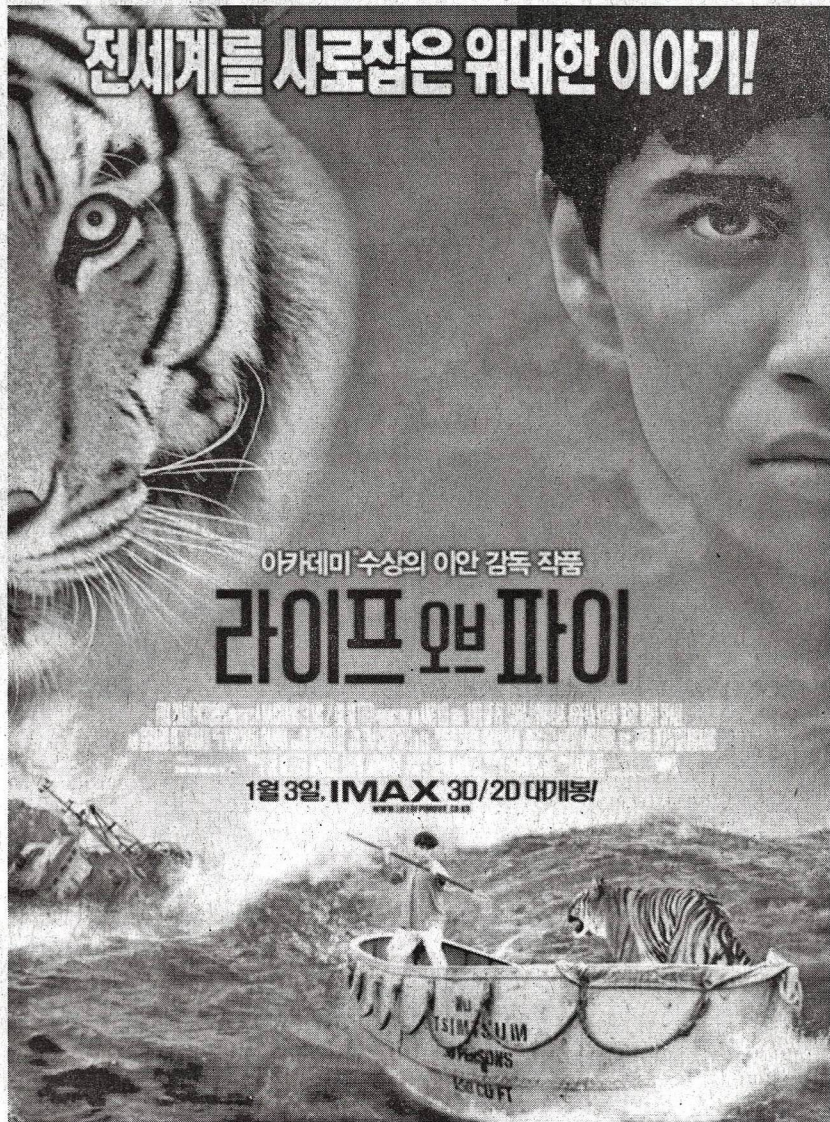
“살아 있는 불교는
생활 가운데에서 깨달음이 얻어지고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영화에서 불교보기 <29>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



맹수와 소년의 동거를 다룬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미국, 2012)를 보면서 언젠가 읽은 책이 생각났습니다. 책에는 주인공이 키우는 개 세 마리가 이웃집 앞 마당을 피바다로 만들어놓은 사건이 묘사됐습니다.

풍산개들이 점령한 이웃집 마당은 개들의 시체가 널브러져있고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런데 처참한 풍경에 분노하는 것은 인간뿐이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개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살생의 범인인 개들은 주인이 나타나자 꼬리까지 흔들며 반겼고, 이 현장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는 개들처럼 갑자기 온순해졌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끔찍한 장면인데 개들은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개들에게는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식이 없으며,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의식'이 부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의문이, 야생의 본능대로 사냥을 한 풍산개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럼 죄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까지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안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 또한 위 이야기에서 가졌던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과연 동물에게 살생죄를 물을 수 있을까? 얼룩말을 먹은 하이에나에게 죄가 있다면 하이에나를 죽인 호랑이는? 더 나가 만약 인간이

동물의 야생 상태에서 살생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라이프 오브 파이>는 이런 근원적 의문에 대한 답을 표현한 영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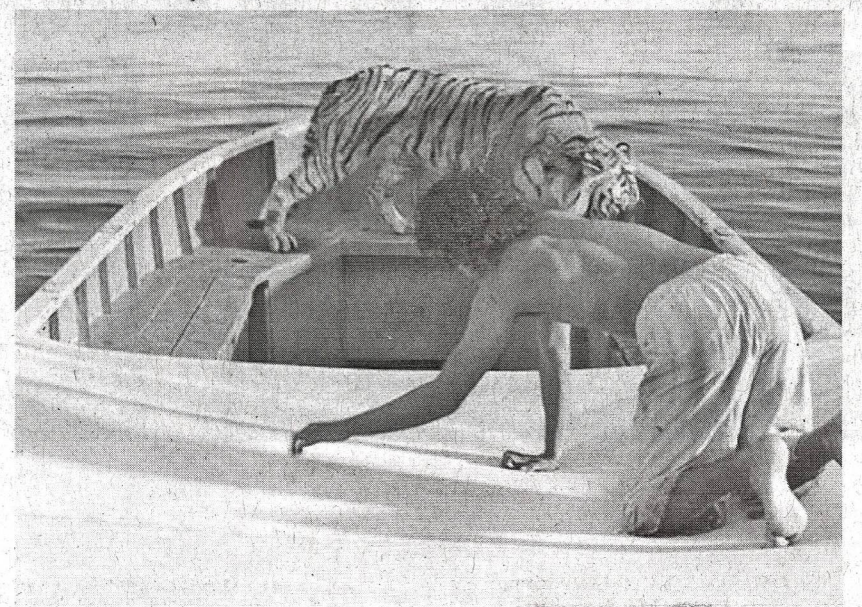
사실 이 문제는 1884년 7월 난파선 미노네토호에서 일어났던 식인(食人)사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더들리와 스티븐스 재판'은 19세기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재판인데, 미노네토호가 침몰했을 때 구명선에서 목숨을 건진 선원에 관한 재판입니다. 더들리라는 선장이 스티븐스라는 항해사와 모의해서 함께 난파됐던 급사 소년을 살해하고, 그 인육을 먹으면서 바다생활을 버티다가 구조되고,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하고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더들리에게 목숨을 빼앗긴 소년의 이름은 리처드 파커였습니다.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에 나오는 뱀갈 호랑이의 이름도 리처드 파커였습니다. 아마도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의 원작자인 안마텔은 이 재판에서 모티브를 얻어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설가 안 마텔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통해 '더들리와 스티븐스 재판'을 판단한다면, 영화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바다 위는 생존본능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성이 낄 틈이 없는 상황이 었다. 인간은 동물의 상태였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인간을 이성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웃집 개들을 물어 죽인 풍산개를 사형에 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겠지요.

불교에서는, 죄라는 것이 자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죄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게 되면 '나'가 없어지게 되고, 그럼 지옥에 갈 '누구'도 없고, 죄업에 대한 과보를 받을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서 보았을 때 '나'라는 의식이 없는, 동물의 생존본능에 의한 살생에 대해 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라이프 오브 파이>의 주인공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는 인도 프랑스공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파이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파이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름과 관련 있습니다. 파이의 본명은 피신 폴리토 파텔인데, 첫글자 '피신'은 영어로 오줌싸개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파이를 오줌싸개라고 놀렸고, 주인공은 이 별명에서 탈출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줄여서 '파이'라고 소개하고, 칠판에 뽀뽀하게 원주율을 외워서 적었습니다. 이후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이지만 한때는 짜질한 오줌싸개였고, 이제는 원주율의 무한소수를 외우는 머리 좋은 파이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달라지면서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파이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는 언어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고, 인간이 현존 보다는 관념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징은, 파이가 매우 종교적인 아이라는 것입니다. 힌두교도이면서 채식주의자인 어머니를 닮아 파이 또한 채식주의자이면서 힌두교 신을 비롯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위의 이야기에서 주방장은 하이에나로, 엄마는 오랑우탄으로, 불교신자는 얼룩말로, 자신은 리처드 파커로 바뀌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어냈던 것입니다.

"야성, 그게 신과 어울리죠."

해 알라와 예수도 믿는 다종교주의자로 성장했습니다. 신에 대한 헌신 안에서 파이의 어린 시절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어린 파이에게서 신은 자비로웠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처럼 신도 그렇게 따뜻하고 평화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리처드 파커'라는 호랑이를 만나면서 깨졌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동물원에서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의 뱀갈 호랑이를 만납니다. 아버지는 파이를 호랑이 가까이까지 못하게 했습니다. 잔인한 본성이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파이에게 호랑이의 야성을 확인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노루 한 마리를 쟁쟁하게 낚아채 물어 죽이는 호랑이를 보면서 파이는 두려움과 함께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도 깨졌습니다. 신에 대한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선한 신이 있다면 왜 뱀갈 호랑이를 벌하지 않는가, 왜 신은 죄 없는 양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가, 와 같은 의문에서 시작된 회의감이 어린 시절을 구성하던 세계에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영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호랑이'에 대한 해석입니다. 호랑이에 대해 이안 감독은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연은 인간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생각과 이성, 판단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상태를 의미하고, 대부분의 야생동물은 아마도 이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가 호랑이에게 거리감을 보인 것은 야성과의 거리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야성은 파이에게서 불편하고 거북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동물원에서 키우던 동물들과 함께 파이 가족은 캐나다로 떠나는 화물선을 탔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모두 죽고 파이만 구명선에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명선에는 다리를 다친 얼룩말이 타고 있었고, 바나나를 타고 오랑우탄이 구명선에 오르고, 이어 사람인 줄 알고 구해주었는데 배에 오른 것은 호랑이 리처드 파커였습니다. 나중에 하이에나까지 나타났습니다. 항해가 길어지자 동물들은 배가 고왔고, 가장 먼저 얼룩말이 죽고, 하이에나에게 오랑우탄이 죽고, 이어 리처드 파커가 하이에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에는 호랑이와 파이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어른이 된 주인공 파이는 자신의 얘기를 쓰려는 작가에게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두 번째로 들려준 이야기는, 사실 구명보트에는 파이와 어머니, 그리고 배에서 만났던 친절한 불교신자, 그리고 성격이 나쁜 주방장이 타고 있었는데, 불교신자가 다리를 다쳐 쓰러져 있다가 죽었는데, 그 인육을 이용해서 주방장이 뱀갈이를 잡는 걸 보고 엄마가 화를 냈고, 그래서 주방장이 엄마를 죽였으며, 이에 분노한 파이가 주방장을 죽였

그러면서 성인 파이는 작가에게 두 이야기 중 어떤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드냐고 묻습니다. 작가는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더 낫다고 합니다. 누군가 죽이고 죽는 현상은 똑같지만 한 편에는 사람이 나오고, 다른 편에는 동물이 나오는데,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더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 이야기는 관념이 끼어들게 되고, 즉 죄의식이 끼어들게 되지만 동물 이야기에는 순수한 현실만이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영화는 끊임없이 인간이 갖고 있는 관념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했습니다. 동물의 야수성이 극단적으로 순수하다는 의식을 갖고, 결국에는 신의 의지와도 오히려 동물의 야수성이 더 어울린다는 결론까지 도출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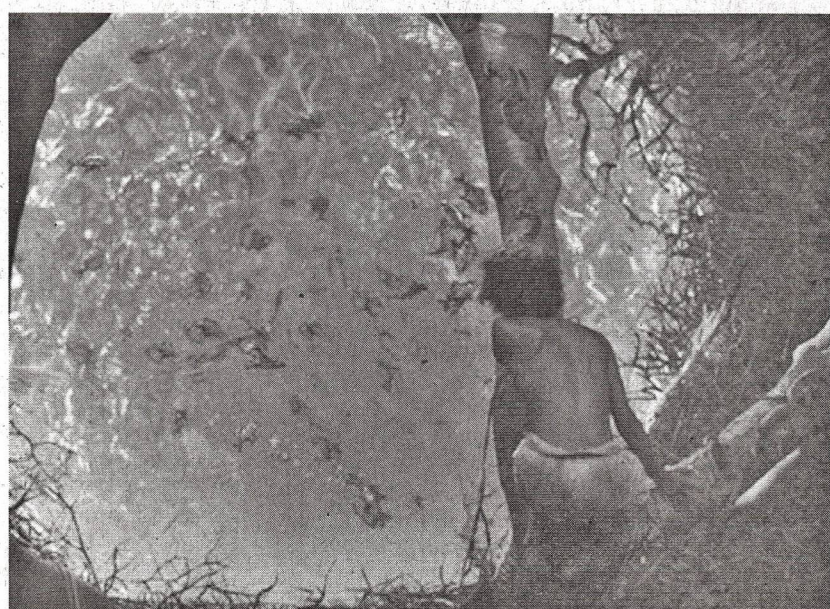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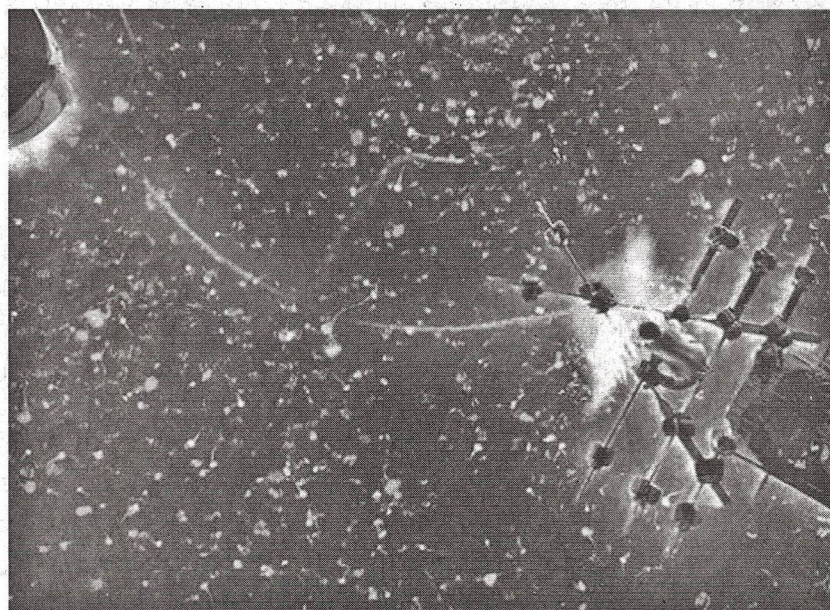
구명선에서의 파이는 어린 시절의 파이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시절의 파이가 이성과 종교, 즉 인간으로서의 특성이라고 규정짓는 것들에 의해 지배받는다면 구명선에서의 파이는 야성과 생존본능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파이의 상태를 영화는 '호랑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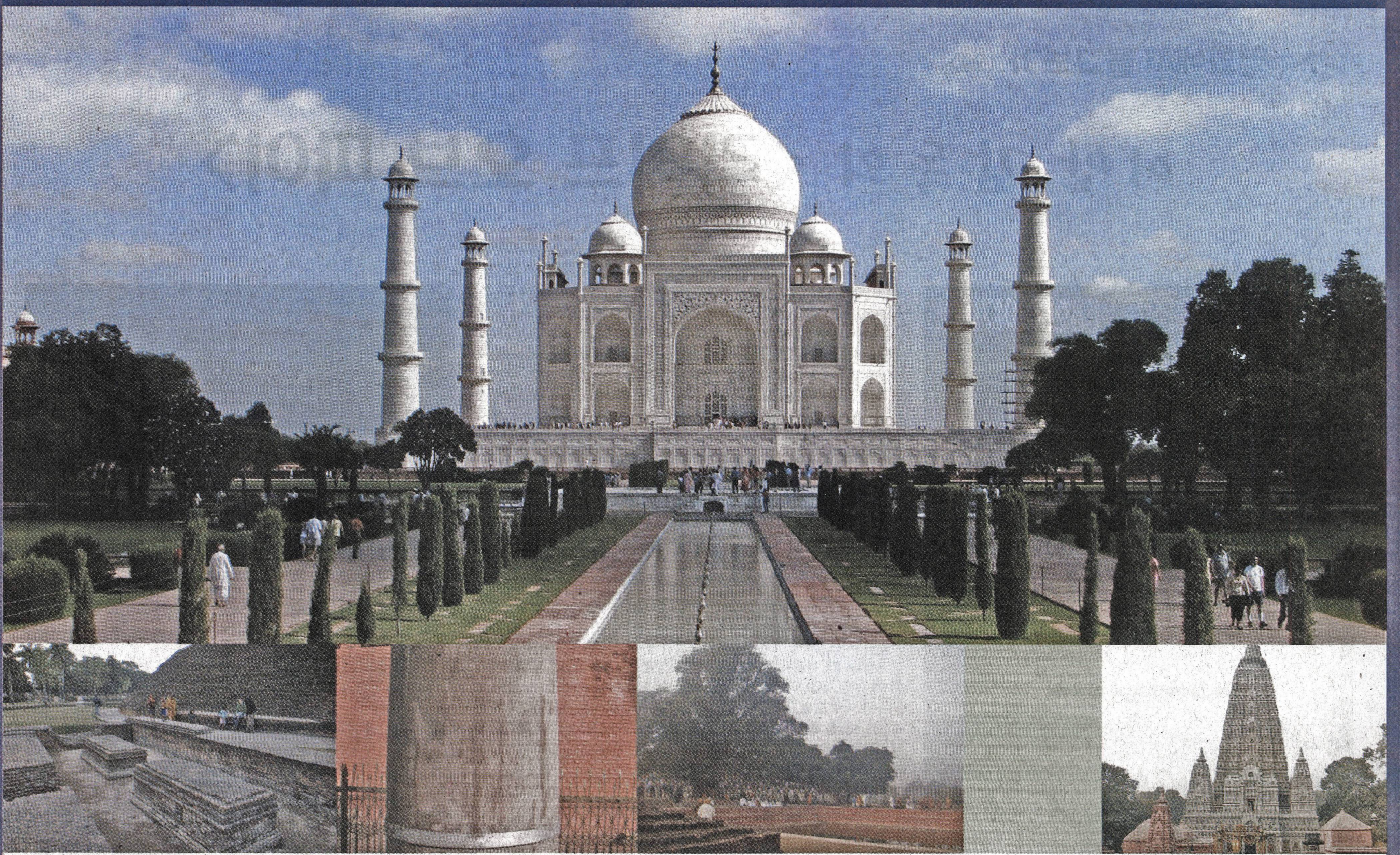
문명으로 돌아온 파이는 호랑이와 헤어질 때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이 돼서 다시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랑이를 그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운다고 했습니다. 즉 파이는 문명사회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자신의 야성과의 결별을 슬퍼했고, 또한 그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으로 추켜세우며 동물에 대해 우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 근거는 이성에 바탕을 둔 종교와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인간의 이성을 마음껏 조롱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극단적이게도 동물의 야성을 신과 연결시키면서 인간의 이성을 비판했습니다. 이성이 인간을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안 감독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전 영화 <색, 계>에서도 인간의 이성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이성이 인간을 외롭고 불안하고 개체로 전락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영화도 이런 결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의 결론에서 한 발 더 나가 본성이 신의 특성과 맞다고 할 정도로 인간의 이성은 우리 신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지요. 과학과 문명이 만개하고, 가장 이성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을 그는 영화를 통해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김은주(자유기고가)





불교총지종과 함께 떠나는 인도&네팔

8대 성지 순례

• 순례지역 : 인도 & 네팔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Umbini)

“부처님께서 무상정각(無想正覺)의 깨달음 얻으신 성불(成佛)의 땅” 보드가야(Bodhgaya)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신 초전법륜지(初轉法輪地) 녹야원(鹿野苑)” 사르나트(Sarnath)

“세계 최초의 불교사원 왕사성(王舍城) 죽림정사(竹林精舍)” 라즈기르(Rajgir)

“제2차 경전결집 비사리(毘舍離) 대림정사(大林精舍)” 바이살리(Vaishali)

“부처님께서 24번의 하안거를 보내신 사위성(舍衛城) 기원정사(祇園精舍)” 스라바스티(Seavasti)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오리시어 설법하신 후 하강하신 삼도보계(三道寶階)” 산카시아(Sankasia)

“부처님 열반지” 쿠슈나가르(Kushinagar)

아그라 타지마할 포함

• 순례기간 : 2013년 11월 13일(수)~ 23일(토) (10박 11일) / 부산출 · 도착

• 순례코스 : 부산-델리(1)-렉나우-스라바스티(1)-룸비니(1)-쿠슈나가르(1)-라즈기르(1)-나란다-보드가야(1)-바라나쉬(1)-렉나우(1)-아그라(1)-델라-기내(1)-부산

• 순례비 : 2,690,000원(변동환율 적용, 추가금액 발생 가능)

계약금 입금구좌 : 부산은행 023-01-037333-6 포커스투어 / 계약금 1인 100,000원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모집대상 : 승직자, 교도, 교도 가족

• 신청기간 : 2013년 9월 30일까지

• 신청 및 기타문의 : 불교총지종 정각사 ☎ 051_552_7901 정각사 법상정사 H.P 010_5521_3400

포커스투어 ☎ 051_463_4144 H.P 010_9763_0700